코스피 ▼ -8.76 (2689.25) | 코스닥 ▼ -1.84 (764.95) | 원·달러 환율 ▲ +5.05 (1331.85) | 금리(국고채 3년) ▲ +0.050 (2.940)

2024년 8월28일 수요일 전남일보

'인공지능 실증도시 광주' 기업 유치 가속화

시, 플랫폼 등 AI기업 10곳 협약
법인 등 설립…기술 개발·사업화
AI생태계 조성·일자리 창출 기대

인공지능(AI) 실증도시 광주에 기업들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는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클라이온, 디지털로그 테크놀로지스, 바이오컴, 인이지, 써로마인드, 두루미스, 정션메드, 엠 코포레이션, 헬프티쳐, 레스트오브 등 플랫폼·헬스케어·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AI기업 10개사와 204~213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윤지 클라이온 대표이사, 손동규 디지털로그 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전태준 바이오컴 대표이사, 장윤석 인이지 사업총괄이사, 장하영 써로마인드 대표이사, 정임수 두루미스 최고운영책임자, 박지민 정션메드 대표, 박재범 엠 코포레이션 대표이사, 이경민 헬프티쳐 대표이사, 임하영 레스트오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기업들은 광주지역에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 등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협력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추진 및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전문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기업 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참석자들은 "광주를 택한 이유는 국가AI데이터센터와 같은 인프라와 도심 곳곳을 내주는 광주시의 실증 정책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힘은 광주시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에 대한 의지이다"며 "광주에서 성장해 좋은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약 1조원에 육박하는 AI 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AI 기업들을 맞이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광주를 택한 기업의 선택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클라이온은 클라우드 전문성을 바탕으로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공공, 금융 등 디지털 전환을 돕는 디지털 혁신기업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민 행정편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AI 전문인재 양성에도 힘쓰는 등 지역 내 AI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로그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WS(아마존 웹서비스)의 글로벌 AI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동시 선정돼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마케팅 업무를 디지털 전환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SaaS형 마케팅 캘린더 '비즈캘린더'를 서비스하고 있다.

㈜바이오컴은 바이오 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혁신 기업이다. 사람 신체에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음식물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통해 인공지능이 맞춤 식단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TIPS 프로그램에 선정돼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인이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설명 가능 인공지능(XAI) 예측기술력을 보유한 '공정 최적화'와 '자율제조'를 실현하는 산업 AI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국내외 제조기업에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정 최적화와 에너지 절감, 탄소 저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써로마인드는 언어 처리, 시각 및 청각 분야의 멀티모달 AI 핵심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며,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대표 제품으로는 AI 개발과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 'SURROMIND AI Studio'가 있으며, 자율 제조와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AI 솔루션과 기업 맞춤형 AI 챗봇 솔루션을 통해 생성형 AI을 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두루미스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번 작성하면 18개 언어로 번역돼 게시되는 '두루미스'라는 글로벌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게시된 글들은 각종 검색 서비스에서 각각의 언어로 검색하면 노출된다.

정션메드는 AI 음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케어봄'으로 시니어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가족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를 지원한다. 광주 노인복지시설과 협업해 실증사업을 확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광주시와 협력해 인공지능 도시 생태계에 기여할 계획이다.

엠 코포레이션㈜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화된 콘텐츠 창작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콘텐츠 창작자들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무비 크리에이터' 3D 라이브러리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다. 콘텐츠 산업과 프러덕션 제작 프로세스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모듈형 콘텐츠 창작 솔루션을 개발해 광고 및 영상콘텐츠 제작 환경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헬프티처는 에듀테크(Edu-Tech) 기업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하며 다양한 교육 솔루션을 제공한다. 에잇(Ai!T) 현장체험학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상담 업무 경감 및 메타버스 졸업앨범 등 에듀테크 기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레스트오브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니어 맞춤형 근력운동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시니어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 있으며, 요양시설과 복지관에 맞춤형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니어 건강 데이터 분석과 개인화된 운동 처방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롯데百 광주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추석 선물 세트 본 판매를 오는 9월1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추석 선물 세트의 키워드는 '엘프리미에(L Premier)', 익스클루시브(Exclusive)', '큐레이션(Curation)'이다. 전체적으로 선물의 품격을 높여 프리미엄으로 선보이는 동시에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롯데백화점의 차별화된 선물 세트도 엄선해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DH오토웨어 평택공장, 광주 빛그린산단 이전

車 전장사업부 증설…4천평 규모
미래차 생태계 조성 1천억 투자
中 청도공장도 검토…시와 협약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앵커기업인 DH오토웨어가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빛그린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지역에 1000억원 규모 투자에 나선다.

27일 DH오토웨어에 따르면 광주 빛그린산단 내 2만4049㎡(7275평)를 매입, 연면적 7895㎡(2388평) 규모의 1차 자동차 지그 생산업체를 가동 중이다.

또 주변 대지 1만4916㎡(4512평)를 추가로 매입해 평택공장 자동차 전장사업부 광주 이전을 목표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2025년 완공시 광주지역 고용 창출과 주변 협력업체 등과 공급망 개선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국 청도공장 이전도 검토 중이다.

DH오토웨어는 평택공장을 완전 이전해 내년부터 공장이 가동되면 지역 인재 2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DH오토웨어는 이날 미래 모빌리티 소부장 신기술·신제품을 교류하기 위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소부장 기술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광주시와 맺었다.

앞서 DH오토웨어는 광주시가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자율차 부품 분야로 선정된 후 소부장 앵커기업으로 참여해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 기술 자립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DH오토웨어 관계자는 "앵커기업 선정을 시발점으로 광주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는 마중물이 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요인인 인재 유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고용 창출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79년 설립한 DH오토웨어는 자동차카오디오·내비게이션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장기업으로, 2022년 매출액은 약 3700억원이며 종사자는 405명이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토스뱅크, 금융권 최초 '공동대출' 출시

'함께대출'…금융위 혁신금융 지정

광주은행은 27일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금융권 최초로 공동대출 신상품인 '함께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함께대출'은 광주은행의 개인대출 취급 노하우와 토스뱅크의 전국 단위 사업 플랫폼이 만나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안전성을 검증받은 혁신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토스뱅크 앱을 통해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면,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각각 대출 심사를 한 후,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해 자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공동대출 상품을 통해 광주은행은 토스뱅크의 플랫폼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토스뱅크는 부족한 자본력을 광주은행으로부터 보완할 수 있게 돼 두 은행 모두 '윈윈(win-win)'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앱 하나로 두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가능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기반해 다각도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높은 정확성에 따른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함께대출'의 신청자격은 현재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며 증빙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급여소득자이다. 대출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억원이고,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4.87%다. 대출기간은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일시상환대출은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은 최소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이다.

최권범 기자

현대자동차, 연식변경 모델 '2025 싼타페' 출시

상품 경쟁력·운전자 편의 강화

현대자동차가 대표 중형 SUV 디 올 뉴 싼타페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싼타페'(사진)를 27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2025 싼타페는 고객이 선호하는 편의 및 안전 사양을 확대 적용하고, 실용성을 높인 신규 트림 및 옵션 패키지 등을 도입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5 싼타페의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전방 충돌 방지 보조(교차 차량/추월 시 대향차/측방접근차/회피조향 보조) △고속도로 주행보조2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주행)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진출입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으로 구성

된 현대 스마트센스를 기본화해 대표 중형 SUV에 걸맞은 안전성을 강조했다.

새로 추가된 '프레스티지 플러스' 트림은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반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측방주차거리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주차 경험을 제공한다.

엔트리 트림 '익스클루시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디지털키2 △듀얼 스마트폰 무선충전 등 고객 최선호 사양으로 구성한 옵션 패키지 '베스트 셀렉션'을 새롭게 운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2025 싼타페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모델 △익스클루시브 3546만원 △프레스티지 3863만원 △프레스티지 플러스 4005만원 △캘리그래피 4442만 원이다.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은 2WD 모델 △익스클루시브 3888만원 △프레스티지 4205만원 △프레스티지 플러스 4347만원 △캘리그래피 4739만원이며, 4WD 모델 △익스클루시브 4254만원 △프레스티지 4571만원 △프레스티지 플러스 4713만원 △캘리그래피 5105만원이다.

박소영 기자